

— 생활 속의 고전어(1) —

히포크라테스 선서

김영중 (국립경찰병원 순환기내과 진료1부장)

편집자 註 : 이번 호부터는 “생활 속의 고전어”를 연재합니다. 이 컬럼을 통해,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라틴어 또는 그리스어 낱말이나 글들을 원어(原語)로 자세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예과를 거쳐서 본과에 들어가면 1학점짜리 醫史學(medical history)을 수강한다. 웅장한 높은 산 같은 정통 학문인 해부학(8학점)과 생화학(3학점) 등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 통과 못할까 걱정인 판에, 두꺼운 의학 서적들 사이로 가냘프게 끼여 있는 얇은 醫史學 책에는 눈길 가기가 쉽지 않지만, “히포크라테스”(Ἱπποκράτης)라는 醫聖의 이름을 기억하는 한, 의사학은 내 관심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히포크라테스 선서”(ὅρκος Ἱπποκράτους), 평범한 나로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의사(Medical Doctor)로 첫 출발하는 날 거행하는 행사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학교에 따라서는 그의 흉상을 선물로 주기도 한다. 의대 정문 옆에 우뚝 세워진 히포크라테스 동상의 엄지 발가락은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인해 동색(銅色)이

녹슬지 않고 원래대로 반질반질 윤이 난다. 마치 바티칸 성당의 어느 성인들의 발가락처럼. 그러나 돌이켜 보건대 정작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원문의 내용 그대로 공부하거나 외워본 적은 없다. 醫學 강의에서도 그의 탄생과 서거 년도(주전 약 460~370년)와 함께, “의학의 아버지”라는 평가 정도로 간략히 언급하고 지나친 것 같다.

졸업 후 수십 년 간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의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이제 나이 60 환갑을 바라본다. “태초에 말씀(λόγος)이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사도 요한도 선포했듯이, 理論에 기초하지 않는 응용이 이뤄질 수 있겠으며, 人文에 바탕을 두지 않는 의학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특히 줄기세포 분야는 인문학의 중심인 신학과 윤리학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파멸로 치닫게 될 것이다. 신앙과 윤리는 의학으로 하여금 기술(技術)이 아니라, 인술(仁術)을 이루게 함을 은퇴할 시기에 이르러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그리고 청년 시절 교양으로 치부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제 전공 필수로 마음 속을 채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원문 그대로 읽어 본 것은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사실상 1948년에 세계의사협회에서 정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이다. 이 선서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의사의 윤리 강령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히포크라테스의 이름을 빌려 선서되고 있다면, 그리스어 고전에 관심 있는 자들은 그가 말한 본래의 선서가 어떠한지를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원문을 번역해 봄으로써 의료인의 본성을 찾아 극기복례(克己復禮)하고자 한다.

ΟΡΚΟΣ ΙΠΠΟΚΡΑΤΟΥΣ

(히포크라테스의 선서)¹

”Ὅμνυμι Ἀπόλλωνα ἱητρὸν, καὶ Ἀσκληπιόν, καὶ Ὑγείαν, καὶ Πανάκειαν, καὶ θεοὺς πάντας τε καὶ πάσας, ἴστορας ποιεύμενος, ἐπιτελέα ποιήσῃν κατὰ δύναμιν καὶ κρίσιν ἐμὴν ὅρκον τόνδε καὶ ξυγγραφὴν² τήνδε.

나는 아폴로³ 의사와 아스클레피오스⁴와 휘게이아⁵와 파나케이아⁶ 및 모든 신들과 여신들을 걸고, 또한 그들을 증인들로 삼아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이 맹세와 이 서약을 수행하겠음을 선서합니다.

Ἠγήσασθαι μὲν τὸν διδάξαντά με τὴν τέχνην ταύτην ἴσα γενέτησιν ἐμοῖσι, καὶ βίου κοινώσασθαι,

1. 아래의 우리말은 비블리카의 원전 강독 세미나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번역해 본 것이다.

2. 아이올리스語 또는 아티카語에서 기음(氣音)이 들어간 첫 글자 σ는 ξ로 표기 되었다. 이러한 단어를 그리스어 사전에서 찾으려면 συγγραφὴν으로 바꿔 읽어야 한다.

3. 제우스의 아들로 예언과 치료 등에 관련되어 있다;

4. 아폴로의 아들로 켄타우로스(상체는 사람, 하체는 말인 괴물)인 키론에게 의술을 배웠다. 그가 의술로 죽은 자들을 살리자 제우스는 그에게 벼락을 내려 죽였다. 그의 상징물은 뱀이 휘감고 있는 지팡이인데, 神의 使者를 상징하는 “케뤼케이온”(κηρύκειον)과 혼동하기 쉽다. 후자는 두 마리의 뱀이 날개 달린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형상인데 반해, 전자는 날개 없는 지팡이를 한 마리의 뱀이 휘감고 있다. 그러나 의무병 표장으로 케뤼케이온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5. 아스클레피오스의 여섯 딸들 중 하나로, 건강과 위생 및 병의 예방을 담당한 여신이다. “위생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hygienics 또는 hygiene은 바로 이 이름에서 나왔다.

6. 아스클레피오스의 여섯 딸들 중 하나로, 치료의 여신이다. “만병통치약”을 뜻하는 영어 단어 panacea는 바로 이 이름에서 나왔다.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친 자를 나의 부모처럼 여기며, 그와 함께 동역하며 살겠으며,

καὶ χρεῶν χρηρίζοντι μετάδοσιν ποιήσασθαι,
만일 그가 돈이 필요하면 그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겠고,

καὶ γένος τὸ ἐξ ωύτέου ἀδελφοῖς ἴσον ἐπικρινέειν ἄρρεσι, καὶ διδάξειν τὴν τέχνην ταύτην, ἣν χρηρίζωσι μανθάνειν, ἄνευ μισθοῦ καὶ ξυγγραφῆς,
그의 자손을 나의 직계 형제처럼 여기며, 만일 그들이 배우기 원하면, 그들에게 이 의술을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가르치겠으며,

παραγγελίης τε καὶ ἀκροήσιος καὶ τῆς λοιπῆς ἀπάσης μαθήσιος μετάδοσιν ποιήσασθαι υἱοῖσί τε ἐμοῖσι, καὶ τοῖσι τοῦ ἐμὲ διδάξαντος, καὶ μαθηταῖσι συγγεγραμμένοισί τε καὶ ὠρκισμένοις νόμῳ ἱητρικῷ, ἄλλω δὲ οὐδενί.

내 아들과 나를 가르친 자의 아들들 및 의료법에 따라 선서하고 날인한 학생들에게 내가 배우고 소유한 모든 지식들을 나눠주겠습니다.

Διαιτήμασί τε χρήσομαι ἐπ' ὠφελείῃ καμνόντων κατὰ δύναμιν καὶ κρίσιν ἐμήν, ἐπὶ δηλήσει δὲ καὶ ἀδικίῃ εἴρξω.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의 유익을 위해 식이요법을 사용하겠으며, 그들이 해(害)나 부당한 조치를 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Οὐ δώσω δὲ οὐδὲ φάρμακον οὐδενὶ αἰτηθεὶς θανάσιμον, οὐδὲ ὑψηγήσομαι ξυμβουλίην τοιήνδε.

나는 사약(死藥)을 누가 원하든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처방도 권하지 않습니다.

‘Ομοίως δὲ οὐδὲ γυναικὶ πεσσὸν φθόριον δώσω.

마찬가지로 나는 유산시키는 약을 여자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Αγνῶς δὲ καὶ ὁσίως διατηρήσω βίον τὸν ἐμὸν καὶ τέχνην τὴν ἐμήν.

나는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의술을 지키겠습니다.

Οὐ τεμέω δὲ οὐδὲ μὴν λιθιῶντας, ἐκχωρήσω δὲ ἐργάτησιν ἀνδράσι πρήξιος τῆσδε.

나는 수술하지 않겠으며, 결석(結石)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넘기겠습니다.⁷

Ἐς οἰκίας δὲ ὁκόσας ἂν ἐσίω, ἐσελεύσομαι ἐπ’ ὠφελείῃ καμνόντων, ἐκτὸς ἐὼν πάσης ἀδικίης ἐκουσίης καὶ φθορίας, τῆς τε ἄλλης καὶ ἀφροδισίων ἔργων ἐπὶ τε γυναικείων σωμάτων καὶ ἀνδρώων, ἐλευθέρων τε καὶ δούλων.

내가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나는 환자들을 위해 가겠고, 의도적인 부당한 행위와 모든 못된 것들, 특히 여자나 남자들—그들이 자유인이든 노예든 간에—과 성적 관계를 맺는 일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Α δ’ ἂν ἐν θεραπείῃ ἢ ἴδω, ἢ ἀκούσω, ἢ καὶ ἄνευ θεραπήης κατὰ βίον ἀνθρώπων, ἃ μὴ χρή ποτε ἐκλαλέεσθαι ἔξω, σιγήσομαι, ἄρρήτα ἡγεύμενος εἶναι τὰ τοιαῦτα.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하여 치료하는 과정이나 또는 치료와 상관 없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결코 알려저서는 안되는 것이라면 나만 알고 있겠으며,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겠습니다.

7.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수술은 의사가 하지 않고, 이발사에게 맡겼다.

Ὅρκον μὲν οὖν μοι τόνδε ἐπιτελέα ποίειοντι, καὶ μὴ ξυγχείοντι,
만일 내가 이 맹세를 지키고 어기지 않으면,

εἴη ἐπαύρασθαι καὶ βίου καὶ τέχνης δοξαζομένῳ παρὰ πᾶσιν
ἀνθρώποις ἐς τὸν αἰεὶ χρόνον,
나에게는 인생과 의술을 즐기는 혜택이 주어질 것이며, 미래에 사
람들 사이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παραβαίνοντι δὲ καὶ ἐπιορκοῦντι,
그러나 이것을 위반하고 거짓 맹세를 하면

τάναντία τουτέων.

정반대의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